**2012년-2013년 중국 ICT산업 발전 동향**

<개요>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 ICT산업은 2005년 4조 위안 규모에서 2011년 10.6조 위안으로 성장해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18차 당대표대회에서는 향후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의 상생발전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정보화’를 19차례나 언급하며 정보화 산업 발전에 더욱 힘을 실었다. 정보통신산업은 중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앞으로도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는 ‘중국 모바일 TD-LTE의 대규모 건설계획’과 전국 300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와이파이시티’ 건설붐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이 크게 확산되고,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여 향후 5년 내 모바일 인터넷 쇼핑 규모가 5,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사물간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터넷 정보이용의 보안장치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 2012년 중국 ICT산업 발전 현황

○ 인터넷 발전 현황

– 1월 15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통계보고’ 에 따르면 현재 중국 네티즌 수는 5억6천4백만 명으로 2012년에만 5,090만 명이 증가하였고, 인터넷 보급률은 42.1%로 2011년보다 3.8%p 상승함

–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 수는 연간 18.1% 증가한 4억 2천만 명에 달해 전체 네티즌 비중이 69.3%에서 74.5%로 대폭 증가함

– 인터넷 응용 방면에서는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微博) 사용자가 3억 9백만 명으로 2011년보다 5,873만 명이 늘었고, 전체 네티즌의 54.7%를 차지함

– 2012년 12월 말, 중국 내 메신저(Instant Messenger) 이용자 수는 4.68억 명으로, 82.9%의 높은 이용률로 중국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소통과 교류의 수단이 됨

–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는 2억 4천2백만 명으로 연간 증가율 24.8%를 기록했으며 온라인쇼핑 이용률이 42.9%로 상승함. 특히 공동구매 이용자 수가 전년대비 28.8% 증가하여 8,327만 명에 달함

–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보급, 기술 개선 등으로 휴대폰을 통해 모바일 공동구매, 모바일 결제, 모바일 뱅킹 등 모바일 인터넷 응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11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함

– 2012년 중국 인터넷 관련 상장회사의 이윤율과 수익증가율은 33.7%, 32.8%로 세계 30위에 드는 인터넷회사의 수준(13.5%, 27%)보다 높은 편임

– 중국인터넷협회는 16일 발표한 <2012년 중국 인터넷산업 발전 종합보고>를 통해 중국 인터넷산업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2년 인터넷산업 규모가 4,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공업정보화부 전신연구원의 차오수민(曹淑敏) 원장은 향후 ICT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6대 주력분야로 광대역 보급, IPv6,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간인터넷(IOT), TD-LTE를 꼽음

– 2013년 인터넷산업 발전 추세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중국 모바일 TD-LTE의 대규모 건설계획’과 지역별 ‘와이파이시티’ 건설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이 크게 확산됨

▸ 둘째,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여 향후 5년 내 모바일 인터넷 쇼핑 규모가 5,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임. 2012년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7조 위안, 그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만 1.2조 위안임

▸ 셋째, 지방정부와 통신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가 대대적으로 건설될 것으로 보임. 현재 68개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에 대한 전문 규획을 발표하였으며,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중국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는 12.5기간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규모가 7,500억 위안에서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넷째, 정보 보안문제가 갈수록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인터넷 정보이용 보안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통신업 동향

– 공업정보화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11월 중국 통신산업 규모는 11,860.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11.4% 증가함

– 2009년 이후 전신업계의 연평균 투자 규모는 3,000억 위안에 달하며, 2012년 전신 업무 수익은 9,833.7억 위안으로 9.2% 증가함

– 1월-11월 유선전화 사용자 수는 작년보다 572.3만 명 줄어들어 27,937.5만 명이고,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같은 기간 11,796.1만 명 증가한 11억 명에 달함

– 인터넷 사용자 중 광대역 사용자는 2,402.7만 명 증가하여 현재 17,402.9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11,127.2만 명 증가한 74,559.6만 명으로 나타남

–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의 영업수익 비중은 2011년 27.7%와 72.3%에서 2012년 11월 26.3%, 73.7%로 이동통신의 시장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 전신 영업수익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동부, 중부, 서부지역이 순서대로 8.4%, 10.3%, 13.3% 에 달함

– 전신업무 수익 규모 상위 5대 省, 市는 광둥(广东), 장쑤(江苏), 저장(浙江), 산둥(山东), 상하이(上海)로 나타남

– 지난해 5월 공업정보화부는 <통신업 12.5발전 규획>을 발표, 2015년까지 전신업무 수익을 1.5조 위안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전화 사용자 14억, 휴대폰 사용자 12억, 인터넷 사용자가 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IT산업 동향

– 2012년 1월-11월, 전자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동기비 11.6% 증가했고, 매출액은 76,330억 위안으로 11.8% 증가함

– 기업이윤 상황은 2012년 하반기로 갈수록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음. 1월-10월 업계 영업수익은 67,347억 위안으로 8.6% 증가했지만 이윤은 2,214억 위안으로 4.1% 감소함. 이는 2012년 초 이윤감소율이 43.2%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다소 호전된 것임

– 이러한 현상은 세금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측되는데, 같은 기간 납세액은 1,030억 위안으로 12.5% 증가함

– 적자 기업 수는 3,900여 개로 약 23%의 기업이 적자 상태이며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35.5% 증가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계속 하락세를 보임. 1월부터 11월까지 IT산업 500만 위안 이상 프로젝트 중 실제 집행된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8,696억 위안으로 증가율이 전년보다 49.7%p 하락한 6.3%에 그침. 이는 같은 기간 공업분야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보다도 14.8%p 낮은 수준임

– 수출증가율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1월-11월 중국 IT제품의 수출입총액은 10,68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4.1% 증가함

– 수출액은 5,273억 달러로 4.5% 증가해 중국 전체 대외수출의 33.9%를 차지하였고, 수입액은 4,412억 위안으로 3.5% 증가해, 전체 대외수입의 26.7%를 차지함

– 업종별로는 특히 통신설비 업계가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보임. 1월-11월 통신설비 업계의 매출규모는 12,100억 위안, 수출규모는 6,29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18%, 20% 증가함

– 1월-11월 휴대폰 생산량은 10.4만대로 1.1% 감소한데 비해 이동통신기지국은 10,310.6만 곳으로 36.8% 증가함

– 전자부품업계도 최근 4개월 연속 증가율 2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며 업계 비중을 확대해 나감. 1월-11월 매출규모는 12,595억 위안, 수출규모는 8,10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16.7%, 14.8% 증가함

– 컴퓨터업계는 같은 기간 매출액 20,461억 위안, 수출액 15,475억 위안을 달성해 전년동기비 11.1%, 10.1% 증가함

– 소프트웨어의 경우, 같은 기간 영업수익 2.19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27.3% 증가해 비교적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듦

– 그 중 IT서비스업 수익 비중이 51%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집적회로(IC) 설계가 산업정책의 수혜를 받아 증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 1월-11월 IC회로 설계 영업수익은 678억 위안으로 34.3% 증가함

– 데이터 처리 및 운영서비스도 수익 3,78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34.3% 증가했으며,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이 35.5%, 소프트웨어 제품이 23.8%로 전반적으로 20%~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지역별로는 연초에 비해 중부지역의 매출 증가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동부지역은 소폭 반등하는 추세를 보임

– 1월-11월 중부지역의 매출규모와 수출규모는 6,804억 위안과 2,47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각각 38.5%, 98.1% 증가하였고, 서부지역은 5,246억 위안(40.4%)의 매출액과 2,555억위안(82.7%)의 수출액을 기록함. 동부지역은 매출규모 62,931억 위안, 수출 36,724억 위안으로 증가율이 7.9%, 4.1%임

– 1월-11월 중국 로컬기업의 매출규모는 22,123억 위안으로 17.7% 증가해 시장점유율 28.9%를 차지함.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출과 수출에서 각각 7.6%, 5.7% 증가하였고, 홍콩, 마카오, 대만계 기업의 매출액은 17,538억 위안으로 14% 증가함

2012년 인터넷 관련 주요 사건

– <인터넷 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결정>, <정보화 발전과 정보보안 보장 확보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등 여러 제도장치 마련, 차세대 정보산업에 대한 인프라시설 건설을 촉진하고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도모하며, 각 지역 차원의 인터넷 관리규정을 발표하여 질서있는 발전을 유도함

– 마이크로 블로그 웨이보(微博)가 정부기관과 주요 언론매체의 주요 정보와 뉴스를 널리 알리고 상호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가 됨. 2012년 11월, SINA사이트에서 정식으로 개설한 정부기관 웨이보는 총 6만여 개로 전년동기비 230%나 증가하였고, 텅쉰(腾讯)사이트의 정부기관 웨이보는 7만여개로 약 2억명의 텅쉰 웨이보 사용자들이 이러한 정부 업무용 웨이보를 팔로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1월 1일 중국 인터넷협회의 주도 하에 12개 기업이 ‘인터넷 검색엔진 서비스 자율 공약’을 체결하여 국제 관례와 상도덕을 지키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포털 검색엔진의 경쟁이 막을 내리고 상호 협력체제의 서막이 열림

– 온라인 상의 네티즌 개인정보 유출, 피싱 사이트의 사기 행위, 휴대폰 운영체계 해킹 등 인터넷 정보보안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면서 공안부가 이에 대한 신고 및 처벌체계를 강화하고 다각도로 협력하여 인터넷 보안체계 구축에 나섬

–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 웨이보 등 모바일 인터넷 응용프로그램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던 전통적인 통신업체도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력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업무 구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남

– 타오바오, 텐마오의 인터넷쇼핑 거래액 1조위안 돌파(2012년 11월까지), 2012년 중국의 온라인 매출액이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에서 5%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상거래가 생활 깊숙이 파고들면서 중국의 내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 중국의 3G 사용자 수가 2.2억 명으로 보급률 20%를 초과함. 중국의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연간 판매량은 세계 최대이며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수요도 빠르게 증가

– 유쿠(优酷)와 투더우(土豆), 중국의 양대 인터넷 동영상사이트가 100% 기업분할 방식으로 합병함으로써 중국 80%의 동영상사이트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중국 인터넷 동영상시장 수익의 1/3을 차지하게 됨

– 지난해 11월 중국 국무원이 ‘중국 라디오TV네트워크 유한공사’의 설립을 정식 승인함으로써 기존의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3대 체제에서 4대 통신운영체제로 전환됨

– 2012년 TD-LTE확대 보급을 위해 중국 13개 지역 에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과 인프라시설 구축이 전면 추진되어 2012년 말 TD-LTE 기지국 2만 개 건설을 시작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0만개, 40만개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임

– 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 재판매 시범업무, 인터넷 위탁관리업무, 부가가치 전신업무, 통신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통합 등 8개 분야의 전신업에 대해 민간자본의 진입을 인가, 장려한다는 의견 공문 을 발표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음

– 중국의 대표 3대 통신업체가 전국 300여개 도시와 제휴를 맺고 ‘스마트시티(智慧城市)’, ‘와이파이시티(无线城市)’ 건설을 추진, 도시의 정보화 발전에 적극 참여함

\*출처: 中国工业和信息化部(www.miit.gov.cn), 中国信息产业网(www.cnii.com.cn),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www.cnnic.cn), 电子信息产业网(www.cena.com.cn), 易观智库 中文互联网数据咨询中心([www.199it.com](http://www.199it.com))